

■ 박근종 칼럼

수출 호황에도 중소기업은 휴·폐업 행렬 가속, K자형 양극화 경계심 높일 때



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13개 품목의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다.

9대 주요 지역 중 중국, 미국, 아세안, EU, 중남미 등 7곳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질적으로도 탄탄하다. 하루 평균 수출액 역시 28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0% 증가하며 1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수출액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처럼 반도체 수출 호조와 늦은 설연휴 효과로 역대 1월 중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출 온기가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과 대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비주력 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수출·대기업과 달리 내수·중소기업 부문은 정체 또는 침체에 빠져드는 조

집이 뚜렷하다. 2025년 3분기 자영업 폐업률은 2.5%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한다.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 해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으로 전년의 48.9%나 급증하며 두 배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우량 중소제조업체가 몰려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조업 전반으로 양극화가 확산 중이라는 불길한 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외에도 'K자형 양극화'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많다. 1월 경기실사지수(BSI)가 대기업 87, 중소기업 59로 4년 8개월 만에 최대 차이로 벌어졌다. 수출이 8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 최대업에도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0.5%로 2023년(1.0%) 2024년(1.5%)의 절반 이하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로 전년보다 0.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혼란으로 지난해 상반기 경제 전반이 동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생산 증가율은 2024년(1.5%)보다 크게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비금속광물과 1차 금속 등 건설·연관 업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기타운송장비 생산이 늘며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조선업 호황이 산업생산을 견인했다. 반도체 생산은 전년 대비 13.2% 늘었고, LNG선과 특수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 수주 확대의 영향을 받은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급증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0.5% 상승했다. 소비는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4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 3분기에 소비 신장이 두드러졌다.

신제품 출시와 보조금·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승용차, 컴퓨터와 같은 내구재 판매가 늘었다. 설비투자지수는 전년 대비 1.7% 상승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와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증가했고, 운송장비 투자도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17.3%)과 토목(-13.0%) 모두에서 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 대비 16.2%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8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으로,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8.1%)보다도 부진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보다 1.5% 증가했다. 소매 판매도 의복과 음식료품 판매 증가에 힘입어 0.9%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3.6% 감소했는데,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늘었음에도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기타운송장비 투자가 16.1% 줄어든 영향이 컸다.

특히 2025년 12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은 6.2%, '그냥 쉬었다'라고 답한 청년이 76만 명에 이른다.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원 기업의 절반이 수출 최대 장애 요인으로 '중국의 저가 공습'을 꼽았다. 기록적인 고환율도 큰 부담이다.

상당수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까닭에 환율 상승이 수입 원자재 가격에 직격된다. K자형 양극화는 자산·지역 불균형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갖은 문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바다 경기를 살리는 데는 특효약이 없다. 의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금전적 지원도 일회성이 그칠 뿐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싫어하는 정책적 규제를 걷어내야만 한다. 지지부진한 삼속세 개편에 좌절해 폐업을 선택하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는 대목도 유념해야 한다. 하루 하루가 버거운 중소기업이 봉착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한다. 경쟁국을 이기려면 본원적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수원시에서는 설 명절 연휴 내내 심심할 틈이 없다!

연휴 기간 즐길거리…화성행궁, 자연명소, 수목원, 공공시설 등 소개



연초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설 연휴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연휴 기간 내내 영상 1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예보돼 모처럼 아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 곳곳에서 전통과 즐거움, 자연과 휴식을 만끽하는 연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수원화성행궁에서 만나는 조선시대 VIP!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꼭 꼬봐야 할 수원의 관광명소는 화성행궁이다. 단아하고 예스러운 행궁을 누비다가 정조대왕을 만나는 특별한 행운을 누릴 수 있어서다.

명절마다 고즈넉한 풍경을 선물하는 화성행궁에서 수원시는 올해 설 명절 기간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가 아심 차게 준비한 '행궁 타임슬립'이다. 역사적 인물과 친근한 현대적 캐릭터 역할로 분한 배우들이 캐릭터 그리팅(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캐릭터 배우가 나타나 사진촬영 등 활동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다.

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반영한 정량 평가와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병행해 진행되며, 종합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강화군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적극 알리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연휴 기간 내내 쉬지 않고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료 이용 시설인 화성행궁은 설 당일에는 무료 개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관광안내소와 국궁장 등은 설날 당일은 운영하지 않고, 운영 시간도 각각 다르니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다.

주말에는 화성행궁 인근 공공시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수원전통문화관 상설전시실에서 열리는 '혜경궁홍씨의 봉수당 진찬연'과 열린문화공간 후소 테마 전시 '설안 사람들의 살림살이 이야기'가 옛식문화와 생활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여행으로 안내한다.

◇산, 초원, 성곽, 호수…4색 자연 즐기기

오랜만에 만난 친지나 친구들과

"강화의 매력, 세계에 알린다" 강화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5개 전담여행사 선정… 실적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지원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단체관광객 유치 등 역할



맡는다.

강화군은 총 5개의 전담여행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된 업체에는 관광

상품 홍보·마케팅 비용, 외국어 홍보 콘텐츠 제작비, 유료 체험상품 운영 지원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인

센티브 등 여행사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점수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다.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사업 정지 또는 과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을 모두 완납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평가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등을 반영한 정량 평가와 사업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병행해 진행되며, 종합 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강화군의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적극 알리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재학당 운영 기록부터 항의 서한까지…130년 전 기억 복원한다

아펜젤러·벙커 친필 기록 담긴 서간문집, 보존 처리·복원 예정

130년 전 선교사 시선으로 본 교육·사회 '생생'…향후 자료 공개



지의 기록은 아펜젤러가 썼고, 1900년 10월부터 1901년 10월 8일까지는 당시 배재학당 교사였던 벙커가 작성했다.

박물관은 "배재학당 초기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생생히 전하는 데다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전환되던 시기 서양

자 아펜젤러가 시위대 부관에게 한글로 직접 써서 보낸 향의 서한이 대표적이다.

집에서 쓴 가구와 관련한 편지에는 난로 식사 운반차, 세면대, 한국식 장롱 진열장 등 당시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가구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의미가 있다.

배재학당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서신도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서원 중심의 전통 교육에서 서양식 근대 교육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1차 자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물관에 따르면 그간 자료 일부가 연세대 국학연구원이 퍼내는 학술지 '동방학지'(東方學志)에 실린 적은 있으나, 친필 자료 원문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다.

최근에는 유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관람도 제한적으로 하고 있다. 보존 처리와 복원 작업은 순상된 부분을 메우고 유물 상태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복원에는 약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국가기록원은 향후 자료를 디지털 파일로 제작할 예정이다.